



현장 '청소년돌담학교'를 가다

미래 세대가 쌓는 돌담... 제주의 유산으로

‘제주 돌담 쌓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제주도-서귀산과교 교실 밖 수업으로 기술 전승

“기초를 잘 놔야 합니다. 지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담이 무너져요.”

지난 7일 제주돌문화공원 야외전시장. 돌담 쌓기 강사로 나선 돌빛나예술학교 양수영(교육부장) 씨 곁으로 남색 반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목장갑에 안전모까지 단단히 갖춘 상태였다.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30cm가량 한 줄로 이어지는 외담 쌓기. 그동안 두 번의 실습을 거쳤다는 학생들은 울퉁불퉁 투박한 돌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으며 돌담을 완성해 갔다.

이날은 돌문화공원이 올해 처음 시작한 ‘청소년돌담학교’의 다섯 번째 시간이었다.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에는 서귀포산업과학교등학교 스마트 조정 전공 학생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달 1번씩 전공 수업을 통해서다. 돌의 섬 제주를 이해하는 이론 강의로 시작한 교육은 돌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조정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 돌담 쌓기 기술을 전승하고

지역 인재를 길러 내는 데 뜻을 모은 게 시작이 됐다.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와 서귀산과교가 지난 3월 맺은 업무협약에는 기술 전승 교육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현장 실무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돌문화공원에게도 처음이자 새로운 시도다.

지연아 돌문화공원관리소 학예연구사는 “돌담 쌓기 기술이 단절되지 않게, 과연 어떤 청년 세대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게 효과적일까 고민했다”며 “관련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돌담 쌓기 기술도 전승되고 학생들도 지역 인재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올해는 우선 초급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2·3년차에 중·고급 과정으로 세분화해 진행하려 한다”는 계획도 더했다.

학교 역시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 교실 밖 전공 수업이 제주의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면서다. 서귀산과교 자연생명산업과 박해명 교사는 “돌을 쌓는 기술만이 아



지난 7일 제주돌문화공원 야외전시장에서 서귀산과교 학생들이 돌빛나예술학교 소속 강사들의 지도를 받아 외담을 쌓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3월 처음 시작한 청소년돌담학교는 11월까지 이어진다. 김지은기자

니라 그 안에 있는 제주의 정체성, 제주다움 교육의 의미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며 “실습을 하면서 생활 속에 돌담이 어떻게 쓰였는지, 앞으로 이것을 왜 이어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에게도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시간은 아닌 듯했다. 현장에 서 만난 학생들은 돌담을 쌓는 일이 “인내심”(강유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나 “친구들과 여러 가지 체험을 재밌게 하는”(박지성) 경험이 된다고 했다.

제주도는 ‘제주 돌담 쌓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돌담학교도 이를 위한 ‘전승 교육’의 한 행보이지만, 그 너머를 향하고 있다. 강권용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연구과장은 “유네스코 등재는 돌담 쌓기 기술 보전을 위한 한 방법이지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돌담 쌓기를 경험한 것 자체로 충분히 제주의 돌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주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돌담 문화를 보존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영화觀 우울한 좀비와 브런치

먹이고 기도하고 사랑하기

좀비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좀비가 슬픈 이유 또한 동일하다. 좀비는 죽지 않아서 나를 위협하는 존재지만 아직 죽지 않아서 애도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분명히 전과 다른 존재로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 또한 발견할 수 있고 회복이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애뜻한 존재로서의 좀비를 다룬 작품이 있다. 김은영 감독의 장편 영화 ‘우울한 좀비와 브런치’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장르 영화의 축제인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선을 보인 ‘우울한 좀비와 브런치’는 김은영 감독의 전작 ‘더 납작 엥드릴게요’의 연장 선상에 있는 공동체 내부의 소동극이자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크다고 믿는 낙관의 이야기다. 우울증에 걸린 아내 선우(김연교)는 남편 병진(신진영)과 함께 병진의 고향으로 향한다. 그런데 고즈넉하고 평화롭게만 느껴지는 한적한 마을에는 좀비 바이러스가 돌고 있었다.

순식간에 좀비로 변해가는 아내 선우 앞에서 병진의 선택은 완전히 변하지 않은 선우를 돌보는 것이다. 병진은 선우의 바이러스를 늦추는 것만 같은, 선우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생존 레시피를 개발한다. 그 결과로 별레와 꽃이 한데 놓인 기이하고 사랑스러운 음식이 선우 앞에 놓인다. 선우는 사람을 무는 대신 음식을 먹는다. 좀비로서의 정체성이 병진의 음식 앞에서 주저하는 것처럼, 그리고 병진의 이 레시피는 좀비 바이러스와 함께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다. 이 마을에서는 죽지 않은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다.

‘우울한 좀비와 브런치’는 ‘우울’과 ‘좀비’ 그리고 ‘브런치’라는 이질적인 단어들이 총



영화 ‘우울한 좀비와 브런치’.

돌하는 제목처럼 일반적인 좀비 장르의 영화를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낯선 방향을 보여주는 영화다. 생각해본다. 어느 날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좀비로 변해간다면 그 어떤 변화가 생각보다 지연되어 나에게 관찰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좀비를 절멸 시키는 방향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헤매고 불안과 불면의 밤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마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동력이 사랑이기 때문에.

좀비 장르에서 이탈해 마을에 터를 잡은 이상한 좀비 영화 ‘우울한 좀비와 브런치’는 좀비고 뭐고 바이러스고 뭐고 나와 내가 아직 여기 함께 있는데 그거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만일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아니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여기 우리 곁에 있고 바뀌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무엇을 그리 걱정 하나며 그렇게 멸종하지 않을 러브레터를 스크린에 써 내려간 영화다. 당신의 우울증도, 좀비가 된 당신도 나에게 그저 당신의 일부일 뿐이라는 말이 오직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전부의 태도이기에.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문화가 쏙지

오브제 작품 만들기 참가 접수

제주시가 ‘2026 아트페스타인제주’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워크숍은 ‘오브제 작품 만들기’를 주제로 오는 18일 해변공원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디자이너 아하김(김빛나)이 진행을 맡아 슈링클 기법으로 개개인의 기억·감정을 담은 오브제 완성을 도울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참가 접수는 아트페스타인제주 누리집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문의는 제주시 문화예술과 (064-728-2714).

한라도서관 임시자료실 운영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 중인 한라도서관이 임시자료실을 운영한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제주어관에 마련된 임시자료실에는 일반도서와 어린이도서, 영어그림책 등 1만권이 비치된다. 예약도서대출, 희망도서 서비스, 서점바로대출 등도 예약제로 운영된다.

한라도서관은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어린이관에는 유아·어린이를 위한 개방형 독서공간을, 시민복지타운 광장에는 야외 숲속도서관을 연다. 숲속도서관에는 텐트, 캠핑의자 등도 준비한다.

김창열미술관 ‘여름 콘서트’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오는 22일 ‘여름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는 당일 오후 2~3시 미술관 로비에서 만날 수 있다. 서귀포관악단과 서귀포합창단 단원 10여 명이 무대에 올라 클래식 매력을 전한다.

‘문화요일’(수요일)인 이날에는 미술관 관람도 무료 개방된다. 현재 김창열미술관에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파리의 화가 김창열’이 진행 중이다. 예약은 김창열미술관 누리집 ‘교육/행사’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선착순 마감.

초등학생 AI 영상 제작 교육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AI) 동영상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모두 2부로, 1부에선 가족 사진 등 추억이 담긴 사진을 활용해 AI 동영상을 만들어볼 수 있다. 2부는 나만의 박물관 안내 영상을 완성해 보는 시간으로, 박물관 전시 콘텐츠를 직접 관람하고 이를 활용해 AI 기술로 재구성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 누리집. 김지은기자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대통령표창



김 영 배
(서귀포타리클럽 제34대 회장)

해양산업 육성 유공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otary **국제로타리 3662지구**
서귀포지역 전 대표 모임
회장 박 상 돈 외 회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대통령표창



김 영 배

해양산업 육성 유공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번개모임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외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